

# 속 기록

- 회 의 명 : 제 410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5. 12. 26(금) 14:00 ~ 16:37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인)  
김미라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배은주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 불참위원 : 구문모 위 원  
성기숙 위 원

##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제410차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노동조합 비대위원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조정팀 권용민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위원 11인 중 9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6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 202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 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 2026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추진계획(안), 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전경영책임계획(안),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2026년 이월계획(안) 등 의결안건 7건과 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 보고 등 보고안건 6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회의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11월 28일에 개최한 제408차 전체회의에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어서 원안의결 및 수정의결 되었구요. 12월 15일에 개최한 제409차 서면 전체회의에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어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4. 의결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58호 2026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안건번호 1158호 2026년 공연예술창작주체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연예술창작주체사업 중에 창작공간의 경우에는 저희가 10억 4,800만 원 지원결정금액으로 총 12건을 선정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연예술창작주체 공연 비평과 관련해서는 지원결정금액 2억 2,800만 원으로 총 12건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공연 비평 같은 경우에는 문화일반이 있는 관계로 각각의 장르별 2인씩 해서 저희가 통합심으로 진행했고요. 저희가 예산은 배정했습니다만, 진행하면서 약간의 예산 변동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연예술 창작주체 사업 지원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창작주체의 창작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대한 사업의 목적은 공연예술에서 창작공간을 운영하는 민간예술단체 중장기 지원을 통해서 공연예술계 창작 기반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연법에 따른 등록 공연장을 포함해서 4가지가 되고요. 특히 이번에 들어간 것은 민간이 설립한 공연장을 임차 또는 소유하여 운영하는 단체 즉 공공이 설립한 경우에는 저희 사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민간 공연장 기획공연 및 공간 운영 경비 일부가 되고, 단년이나 다년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년, 다년의 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 규모는 5,000만 원부터 2억 원 이하까지 소, 중, 대규모가 있고 각각 소, 중, 대규모의 지원 조건은 8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기획 공연을 3건 이상 반드시 해야 되고 공간 운영을 위한 정보 공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시가 제대로 되는 게 필수사항이고 나머지는 중규모, 대규모에 따른 선택사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연 비평 같은 경우에는 공연예술 비평 분야의 민간예술단체 중장기 지원을 통해서 비평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5년 이상의 비평지 발간 또는 비평 행사 운영 실적 보유 단체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2024년과 2025년도에 전통예술 분야에는 공연 비평이 전무했기 때문에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요건으로 해서 5년 이상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비평 활동이나 간행물 발간, 행사 운영 등으로 소요 경비 일부가 됩니다. 단년, 다년 지원 여부는 역시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요. 매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4,800만 원, 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으로 공모가 나왔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나온 추진 경과와 일정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심의는 약

38일간의 공모를 거쳐서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2주간 비평과 공간, 축제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장르의 위원님들과 함께 사무처와 협의를 통해서 적격자 지정을 5명으로 했고, 전담심의관 1명 등 도합 6명의 심의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의관 구성 일정은 표로 같음하고요. 지원심의위원회 명단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보셔야 할 부분은 중간에 비평 통합심의 관련해서 2명씩 뽑은 명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비평 분야는 따로 통합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선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온라인 채점을 거쳐 대면 회의를 통해서 최종 지원 대상 규모의 1.5에서 2배수 정도의 2차 면접 대상자를 선정했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발표해서 알려드렸고 2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단체별로 15인씩 지원을 했고요. 이때 저희가 진행할 때 1차 점수 결과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에는 이 2개 사업에 대한 심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창작공간과 비평이 나와 있는데요. 공간을 먼저 보시게 되면, 특이 사항은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 특히 구문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심의 기준별로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반영했구요. 그다음에 정량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무처가 사전 체크를 해야 할 사항. 12페이지를 보면 회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사전 체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올해부터 전담심의제가 적용되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는데요. 단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단체 인터뷰를 통해서 모니터링 더하기 실제로 평가 결과를 저희가 다 작성해서 심사위원들이 온라인 채점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연 비평도 마찬가지로 심사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결과 경우에는 창작공간은 총 48건에 61억 6,600만 원이 신청되었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10억 4,800만 원 배정 예산 대비해서 신청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약 6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연 비평 같은 경우에는 총 18건에 6억 1,8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배정 예산 2억 2,800만 원 대비해서 약 3대 1 정도의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14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예산 배분입니다. 예산 배분은 저희가 사무처에서 늘 해왔던 방식으로 전년도의 지원 예산 결정 비율이나 건수 비율 그리고 올해 신청한 금액 비율과 신청 건수 비율로 해서 100% 기준으로 했을 때 가중치를 계산해서 각각 예산을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표의 가장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창작공간은 10억 4,800만 원 중에 각 장르별로 얼마가 배정되었다는 게 나와 있고요. 공연 비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정된 부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심의 결과 경우에는 세부 내역은 19페이지 이하에 별첨으로 참조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심의 결과에 2차 심의 대상으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총 18건. 그리고 공연 비평 같은 경우에는 총 14건을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표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창작공간은 신청이 48

건 중 18건이 올라가게 된 것이고, 비평 같은 경우 18건 신청에 14건이 2차 심사 대상자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2차 심사 대상 결과를 말씀드리면, 15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연예술 창작주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총 12건을 선정했습니다. 18건의 2차 심의 대상자 중에 12건이 선정된 것이고요. 선정률은 25% 정도가 되고 지원결정금액은 전체 신청액 대비 17%로 되어 있지만 2차 기준 선정 대상자로 하게 되면 약 70% 정도의 지원결정금액이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작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권·지역 신청률 대비 선정률을 적용시켰습니다. 지역균형제도인데요. 전체 공모사업에 들어왔던 기준비율이 약 23.6%입니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를 상회 했기 때문에 적어도 23.6%의 수도권·지역 공간을 선정하려고 노력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 12건 중에 6대 6으로 해서 50%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연 비평 같은 경우에는 1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특이한 부분은 지원신청 현황에 배정 예산 대비해서 선정 현황의 예산 비율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극/뮤지컬은 예산이 좀 올라갔고 무용도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다만, 음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줄었고요. 전통예술은 1건이 들어왔는데 2차 심의에 올라오지 못해서 500만원의 예산은 다른 장르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연 비평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 신청 건수가 3건 있었는데 비평지 신청하는 과정에서 비평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평지 매체와 행사의 질을 보고 심의위원들께서 결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 대상자는 총 2건이고 심의 제척과 회피는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용 쪽과 문화 일반에 각각 1건씩 있었고요. 결격이나 지원신청 포기는 없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 오늘 의결해 주시면 12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5시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기관 누리집이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서 개별 확인할 수 있도록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전원에게 문자 발송을 할 예정이고요. 이 발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단이나 총평, 지원 대상자 선정 내역이 가는데요. 이번에 의결을 받았듯이 개별 요청을 할 때는 해당 당사자에 한해서 선정 커트라인이나 지원 대상자의 평균 그리고 심의위원의 개별 평가점수도 실명은 비공개로 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결과 발표 후속 조치는 일반적인 결과 상담이나 옴부즈만 처리를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저희가 창작주체사업 심의 결정내역이 있고 총평 그리고 37페이지에는 저희가 다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되게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요. 37페이지 다년 지원 현황을 보면서 위원들께서 아셔야 할 부분은, 저희가 창작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예산이 25억인데 11개 단체가 이미 14억 5,200만 원으로 다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이번에 10억 4,800만 원으로 공모가 나간 것이고요. 비평 같은 경우 원래 예산이 4억인데 5개 단체가 이미 다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제외한 금액이 2억 2,800만 원으로 공모가 나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 표에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울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단년 지원으로 지원을 받았던 단체인데 상당히 평

가가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 연계상 이번에 다년 지원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의 ‘극단노뜰’ 같은 경우에는 중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용 분야도 마찬가지로 2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엠극장’ 다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올해 전담심의체를 적용하면서 평가가 되게 좋았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비평 부분에 대한 결정 내역도 있습니다. 여기도 2개 단체가 다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올해 전담심의체를 적용하면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던 단체를 재선정해서 다년 지원으로 연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의 총평은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전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은 아니고 (안)입니다. 제가 요즘 지원서에 들어가는 구성 내용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에 써주신 것을 보면 ‘지원신청액으로 거의 최고액을 쓴 단체가 거의 대다수’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타 기관에 심사를 다녀보면 모든 단체들이 지원할 때는 최고액을 써냅니다. 왜냐하면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최고액을 써야 어느 정도 차감이 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금액에 수치가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도 신청액과 결정액을 보면 많이 쓴 단체들은 차감이 되더라도 꽤 큰 금액이고요. 적은 금액을 신청한 곳은 거기에서 차감되면 더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결코 공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서요. 구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지원신청서 안에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무조건 최고액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단체가 그 공연이나 축제를 함에 있어서 합당한 금액을 써낼 수 있는 근거와 심사위원들도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위원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심의할 때 몇 가지 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규모별로 신청할 때 조건 부분을 명확하게 걸어서 그 조건 부분의 예산이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의할 때 해당 단체의 3개년, 4개년 정도의 지원 이력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후자에 너무 참작하는 문제지만 너무 과도하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의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더 신청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지원신청 조건에 맞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선정된다면 지난 3~4년간 유사 프로젝트로 얼마를 지원 받았는지에 대해 심의 위원회에서 고려해서 결정하기는 했습니다. 조건을 좀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따가 보고드릴 축제사업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더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부분은 그때그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속,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평가까지도 하고요. 그러면 사업별로 어느 정도 액수가 적당하다고 하는 기준치를 우리가 이제는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훈경 위원 :** 예, 그 부분이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지원사업을 해 오면서 해왔던 통계치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별로 어느 정도 기준치를 만들어서 제시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지 그때그때 심사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뭘 근거로 해서 논의를 할 것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이게 안 만들어지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얼마나 신뢰를 받고 투명한가? 그리고 객관화 시킬 수 있는냐는 것은 그런 부분의 통계를 내고 기준치를 만들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훈경 위원 :** 예. 첨언을 하자면 저희 내부에서 심사할 때 그런 기준치도 마련하고 말씀하신 것들을 대입시켜서 심사하는 것도 좋은데요. 단체들이 최고액을 써서 삭감될 것을 예상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단체 자체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써야 선정이 될 수 있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4년부터 시작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건에 대한 프로젝트별 통계치를 계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관련해서 연관성 있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교부신청 할 당시에 금액을 쓰지만 신청을 해놓고 나서 예산과 사업이 다 변경되는 겁니다. 최초에 썼던 액수와 교부가 되었던 결정액에 차이가 있으면 사업을 다 변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애초에 삭감될 것을 감안하고 신청 금액을 쓰게 되면 교부 할 당시에, 변경된 확정된 금액으로 교부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 변경률을 몇 %로 정하는 거죠. 전체 사업의 몇 % 이상을 변경하면 안 되고 그 기준을 정하게 되면 당초의 예산이 삭감되었다더라도 신청하신 분들이 사업계획성상의 제출한 내역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변경률에 대한 %를 넣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를 타이트하게 잡는 거죠. 10% 내에서 예산을 삭감했지만 그 사업은 변경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교부신청을 하더라고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배은주 위원님도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담심의제가 적용되면서 심의위원들이 “이 사업은 이 금액으로 지원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무처에 교부신청을 할 때 엉뚱한 사업으로 변경해서 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지원을 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선정하게 된 핵심적인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과도하다 싶으면, 지금 체제는 전담심 의위원님께 교부신청서를 드립니다. 보내드리어서 “위원님께서 선정하신 사업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 사무처의 입장에서는 본질적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년보다 좀 많이 강화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재심의도 2건 정도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연결해서 추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이훈경 위원 :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개선되고 정립이 된다면 배은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되는 것들에 대해 %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억을 쓰고 1억이 되었다면 2억에 맞춰서 구성되었던 것을 1억에 무조건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주요 사업들은 변경이 되면 안 되겠지만 기타 세부적인 것들을 2억에 맞춘 것을 1억에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의 범위를 카테고리별로 나눠 주시는 게 필요하지 무조건 변동을 제한적으로 했을 때는 자부담을 계속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 사례가 있어요? 2억을 신청했는데 반으로 삭감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이번 심의 때는 2억의 기획공연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무조건 깎는 것이 아니라 “이 건은 너무 과도하게 신청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그렇게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것도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대상이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신청서죠.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그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지원신청서상에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청했는데 대책 없이 삭감돼서 자기들이 구현하고자 했던 창작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자는 이유가 그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관제적 통제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2억짜리를 만들어 오라고 해야죠. 심사위원들이 임의로 그것을 깎으면... 나는 세목을 다 정해서 얼마를 쓰겠다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원을 하려면 지원을 해서 주고 결과를 갖고 얘기해야죠. 진행하다 보면 여기에 더 쓸 수가 있고 저쪽에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로 우리가 결산할 수 있는 결과값을 가져오게 하고 가능하면 경계를 없애서 총액 단위로 나가야 한다고 봐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정액 지원도 고민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 부분은 꼭 반영해야 할 겁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159호 202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도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제1159호 202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지원 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전체 지원 건수는 32건의 행사고 지원결정금액은 40억 9,950만 원입니다. 잔여 예산은 2,8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표로 나와 있듯이 전통 쪽의 심의를 하면서 잔여 예산이 약 5,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당시에 음악과 연극·뮤지컬 심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무용은 끝난 상황이었는데요. 음악 분야와 연극·뮤지컬 쪽에 2,850만 원씩 배정했는데요. 연극 쪽은 활용되지 않고 음악 쪽만 활용이 돼서 잔여 예산 2,85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대표 기초공연예술 행사를 지원해서 우수 공연예술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예술 활동의 기반이나 국민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단년 지원사업이구요. 이 역시도 소·중·대규모로 5,000만 원 이상부터 5억 원까지 나뉘져 있습니다.

신청유형은 저희가 작년부터 새로 만들었던 '아르코 씬 페스타' 통합 브랜드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올해 지원조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규모 이상을 신청할 때는 최근 5년간 행사 중에 적어도 신청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비 예산이 들어간 것을 증명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이상 지원을 할 때는 중규모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2026년도 사업에 국고나 지방비 민간 후원을 포함한 문예진흥기금 신청액의 최소 10% 이상 확보 매칭한 단체를 협약서나 공문으로 제출하라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추진 경과 및 일정이나 심의위원회 부분은 동일합니다. 창작주체 공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선정 방법도 창작주체 공간과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회색 박스를 보셔야 되는데요. 사무처 사전 체크 사항이나 개량적인 부분과 관련된 체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유무를 저희 사무처가 검토

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 10점의 배점도 적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44페이지 접수 결과를 보시면 총 84건에 139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배정 예산이 41억 임을 감안했을 때 3대 1 이상의 신청이 되었던 것이고요. 행정 결격은 84건 중에 4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역은 47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배분은 창작주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로 같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사업 장르별 예산 배분 내용에서 공모예산 41억 2,800만 원 그리고 지난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아르코 썸 페스타’ 주관처 5억 원 별도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억 2,800만 원을 저희가 배정 예산으로 나눴고 각각 장르별로 배정 예산은 해당 표의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심의 결과 84건 중에 저희가 44건을 2차 심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최종 선정 건수 2배수 내외였고요. 22건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 사무처에서 보고드렸고 어쨌든 44건이 인터뷰 심의에 올라갔습니다.

지원심의 선정 건수 및 지원 결정액은 총 32건이 되었습니다. 40억 9,900만 원이 지원 결정이 되었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전통예술 쪽 5,700만 원이 남아서 음악 쪽에 2,850만 원을 활용했고 연극/뮤지컬은 활용하지 않아서 잔여 예산이 2,850만 원이 남았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원 선정 현황에서 지원신청금액이 약 29.5%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선정된 단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결정 비율은 약 77%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1차까지 포함해서 나온 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립니다.

46페이지는 수도권·지역 신청률 대비 선정률 현황인데 이 사업은 지역균형제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가 나눠봤을 때 32건 중에 24건이 수도권이고 8건 정도로 25% 정도가 비수도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심의 제척·회피 현황에서 특이 사항은 없고 회피 1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던 행정결격에 대한 단체의 내역이 있습니다.

신청 기준이 미달해서 저희가 제외를 한 부분이 있고요. 다년 단체 중복신청 건이 있는데 해당 단체에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외했습니다.

보고를 드릴 사항 중에 기타 사항이 1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나갈 때 지자체나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지역 행사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해당 사업의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공직유관단체’ 지원 제외 대상 조건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통영 국제음악재단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이 표에 나와 있듯이 조직 구성의 독립성이나 예산 운용의 자립성 그리고 통영시 내에 통영문화재단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의 프로그램이나 행사 부분에서는 전혀 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 가이드를 드렸고요. 심의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통영국제음악제는 지원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마찬가지로 12월 30일에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고 나머지 사항은 동일합니다.

48페이지 기타 사항에서 3번에 2,850만 원에 대한 잔여 예산 활용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5억 원으로 의결 받았던 대한민국공연예술제 통합유형 주관처 운영예산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이것은 그냥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연극 분야에서 선정된 것 중에서 7번에 보면 연출가협회 건이 선정되었는데요. 여기 대표자로 계신 윤우영 선생님은 작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부터 이 대표자 명의로 사업이 올라오고 있어서 바뀌겠지 했는데 안 바뀌고 이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성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작고하신 분이 대표자 명의로 계속 선정되어도 괜찮은 건가요? 심사위원들이 거론하지 않았나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거론은 안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적은 것은 아니라서 연출가협회 쪽에 얘기해서 이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심사 인터뷰 때도 정재호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심사하셨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명확하게 해야죠. 사망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대표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결격 사유가 아닌가요?

**이훈경 위원** :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서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결격은 아니고요.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대표자 변경 신청을 단체에서 저희 쪽으로 하게 되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바로 하라고 하세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이번에도 선정된 것 같은데요. 아까 신청액과 결정액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신청액이 5억인데 결정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액과 결정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단체를 보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런데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신청액을 거의 다 수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단체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통영국제음악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최고액을 5억으로 두었는데요. 작년까지 2023년, 2024년, 2025년 다년 지원을 받아왔던 단체고요. 사실상 3년 동안 6억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최고액 상한을 두었을 때 면접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른 선정된 단체들은 신청액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러니까 통영만 왜 이렇게 신청액과 결정액의 차이가 없게 나왔는지에 대한 납득할 설명이 필요해서 여쭙본 것입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1억 2,000만 원이 줄은 금액으로 보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왕치선 위원 :** 제가 이번에 아마 심사에 들어갔으면 통영을 주지 말자고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작년과 제작년을 보면 통영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타에 모범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들에게 5억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온다고 해도 별로, 간다고 해도 별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 실제로 이 팀은 다년 지원도 받았는데 졸업을 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심사위원들께서 기존에 잘되고 있는 단체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심사에 들어가신 선생님들이, 제가 최근에는 젊은 선생님들을 자꾸 추천하는데요. 그랬더니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분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뭔가를 과격하게 혹은 안 하던 것에 대해 겁을 먹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사위원으로 올하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가 되고 다음에는 안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잘 되고 있고 몇 년 정도 받았으면 졸업을 시키는 게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많이 지원신청을 해서 받아 가고 싶어 하는데 잘되고 있다고 계속하고... 이 팀은 평생 타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빠져줘야 밑의 부족한 팀들이 영향을 받을 텐데요. 절대로 안 빠져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것도 제도적으로 이분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제가 단계적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단계적 지원을 하게 되면 예비 예술인부터 청년 도약 창·제작, 주체사업까지. 주체사업에서 다년까지 하게 되면 6년을 받게 되는 겁니다. 6년 정도 하게 되면 졸업을 해야 된다고 그때도 한번 논의를 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바로 졸업하기 어렵다고 하면 공연물 같은 경우에는 레퍼토리화가 되어 있고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름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후원을 받든 마케팅을 해서 자체적으로 얼마를. 그래서 예를 들어 후원을 1억 해 왔고 하면 그때 우리가 1억을 매칭해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영에 이번에 가서 워낙 글로벌하고 국제적으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의 축제와 콩쿠르가 통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서 봤더니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초대 대표가 ‘플로리안’이라고 국제콩쿠르연맹의 사무총장이 그 당시 1회 초대 대표를 하면서 그 사람에 의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글로벌하게 알려졌는데요. 막상 올해 제가 처음으로 가서 보니까 현지의 지자체나 문화재단이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데에 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정말 깜짝 놀란 게 콩쿠르가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하는데 재단이든 시에서 어느 한 사람도 나와서 하는 게 없고 오히려 국제콩쿠르연맹에서 사무총장이 다 그 역할을 하

는 겁니다. 자기가 초대 대표를 했다는 이유요. 그것을 보면서 과거도 그랬느냐? 과거는 안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모니터를 할 때 이런 것을 모니터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원하면 당연히 지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목을 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차체에 이것은 분명히 정액 지원을 할 것이냐, 액수를 나눌 것이냐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세요. 금액을 결정해 주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정액으로 주고 자기들이 맞춰서 더 나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스폰도 끌어올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조율해 줘서 자기들이 기획했던 것을 다 하지 못하면 관계적으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통제를 받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방향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세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알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작년 행사를 보면서 제가 다른 심의위원들에게 여쭙봤어요. 뭐냐 하면 “이 행사를 평가할 때 당신은 5억 원짜리만 보냐? 아니면 전체 액수를 보고 평가를 하나?”라고 하니깐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5억을 줬으면 5억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텐데요. 실제로 150억쯤 하는 행사 전체에 우리의 돈 5억이 들어간 것을 갖고 평가를 하면 5억을 줬는데 저렇게 큰 행사가 되었으니까 평가위원들이 다 잘 했다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5억을 받아서 5억의 행사를 온전히 하는 단체와는 너무나 불공평해요. 그래서 그때 계속 물어봤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영이 계속 좋은 점수를 받고 랭킹에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그런 이유일 겁니다. 전체 행사비가 워낙 커서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위원회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지금 왕치선 위원님이 통영국제음악제를 빗대서 말씀하셨지만,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저희 지원제도 자체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이 목적인데요. 항상 커다란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잘하는 단체니까 받기는 하겠지만 다른 새로운 단체가 그만큼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는 데만 받는 식이라는 게 현장의 전체적인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처럼 10년이면 10년. 그 이후에는 얼마만큼의 편당을 가져온 만큼만 준다든지 하는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보세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논의만 하지 말고요. 그냥 결정하시죠. 내년부터는 그만한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한 말씀 드리면 공연예술제는 올해 전면적으로 성격을 바꾸고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해입니다. 다년 지원이 다 끝나는 해이고요. 작년에 사전예고제도 나왔듯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반영시켜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만드는데요. 지금 12억 가운데 5억을 갖고 하면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됐다. 통영국제음악제는 그만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하세요.

**왕치선 위원** :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하면 통영 같은 경우 배제가 되나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가 없고요. 원칙을 정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그것은 추후 다시 논의를 해서 안건을 하나 만드세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알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통영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병국 위원장** : 전체적으로요.

**김진각 위원** :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요. 저희가 매년 보고를 받지만, 작년에 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미진 위원** :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요. 논의가 조금 더 본격화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통영의 경우 대표 수입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공연예술축제의 경우 자립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보거든요. 순수예술의 경우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공연예술제가 재정자립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통영이나 대관령 같은 데는 오픈하면 며칠 내에 다 매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에서 얻는 수입은 대단할 것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잘하는 곳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공평하게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원칙이 세워져야 하는데요. 12억 가운데 5억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생태계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 전체 액수의 아무리 잘한 단체라도 10%를 넘지 않는다는 기준을 빨리 만들고요. 조금 힘들겠지만, 다음 달에 의결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시죠.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사실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현장과 소통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계속,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안건을 올리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여론 수렴을 해서 하세요. 올해 초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 분명히 단계적 지원을 하고 단계적 졸업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졸업할 때 그다음 해에는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노력해서 마케팅을 하고 후원을 받아 오는지. 그다음 단계에서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매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 할 수 있는 게, 다음 달 초에 업무보고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이 안건을 넣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론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안건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정갑영 위원 :** 8기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그래도 업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병국 위원장 :**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심사하는데 기본 원칙을 정한 게 단계적 지원과 짚어서 소액 다건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담 심의를 통해 평가해서 그 과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 8기에서 만들어놓은 주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무리를 해야죠.

**배은주 위원 :** 지금 보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의 목적이 대한민국 기초공연예술 행사 지원이구요. 우수 공연예술 발표 기회 제공입니다. 이미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의 우수 공연에 대한 경우는 이미 목적성과도 조금 빗겨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명분은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지자체, 다른 지방 행사와 축제들은 지자체에서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에서 다 운영하는데 통영은 통영국제음악제는 별도의 재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라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하지 않거나 뒷바라지를 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장점으로 작동해서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것이거든요. 관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공무원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이것은 그래도 전문가들이 들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컸다고 보는데요. 이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 지원을 하고 졸업시키려고 하면 더 노력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주고 독립을 시키려고 노력해야죠.

**이훈경 위원 :**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하는데요. 저는 장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규칙을 한 가지 만들어서 그 규칙을 전부 적용하기에는, 특히 타 분야도 그렇겠지만 연극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생할 수 없는 축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협·단체에서 하는 공연들은 마케팅도 거의 70~80% 할인되는 가격으로 나가는 마케팅이 100% 매진이 된다고 하여도 수익 창출이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오래되었다고 배제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아예 존재를 할 수 없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개인이나 개인회사들이 운영하는 또는 재단을 끼고 있거나 기업과 매칭 되어있는 축제들은 자생력과 매칭이 필요하겠지만 장르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은 그런 매칭도 불가하고 기업도 낄 수가 없고 티켓을 판매해도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기준점은 조금 달리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해야 되지만 저는 협·단체에서 하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전부 다 정부예산에만 목을 매고 지원 선정이 되면 한 해 농사를 짓고 안 되고 그냥 망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단체들도 후원을 받으려고 쫓아다녀야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르코에서도 후원하는데 지정 후원제 등을 유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후원을 끌어낼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계속 이 상태에 머무르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세요.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1160호 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지원 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64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시공모 예술기반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에 따라 총 313건 424명을 대상으로 지원결정금액 90억 9,440만 원을 지원 대상 및 지원액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잔액은 3,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연수 단원 34세 이하 그리고 무대 기술 인턴 39세 이하에게 최대 10개월간 인건비를 단체에게 지원하여 문화예술 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현장 진입과 단체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는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심의는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반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의회원 구성은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접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의 공모에는 총 499건이 1,444명의 수요로, 신청액으로는 총 310억 4,200만 원의 수요를 현장에서 보냈는데요. 이 중에서 필수서류 미제출과 오제출로 인한 행정 결격이 1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심의대상은 483건에 신청액은 303억 5,100만 원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를 보고드릴 텐데요. 심의 결과 총 313건이 선정되었고 인원으로 보

시면 총 424명입니다.

지원결정액은 90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총 배정 예산은 91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연수 단원은 78억 7,800만 원이었고 무대 기술 인턴은 1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잔여 예산은 3,4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의 전체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건수 및 참여 인원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지원 결정 현황을 보고드리면, 문학 분야는 총 10명, 시각예술 분야는 총 47명, 연극/뮤지컬 분야는 총 116명, 무용 분야는 35명, 음악 분야는 91명, 전통예술 분야는 57명, 문화일반 분야는 6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70페이지를 보시면 선정 기준 및 분야별 편차를 설명드리면, 연수 단원과 무대 기술 인턴 모두 동일한 인건비 산정기준과 상한액을 적용하였고요. 인원 증가에 비례해서 지원결정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역 균형 취지를 사전에 안내해 드렸고 그 결과 비수권 선정 비율은 32.7%로 올해 지역균형지원제도 23.6%를 상회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 제척 대상은 없었으며 이해관계 가능성이 있는 18건에 대해서는 회피를 적용하였습니다. 행정 결격은 심의 이전 단계에서 제외했고 심의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회피 및 행정 결격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4페이지에서 보시면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 의결해 주시면 30일 화요일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로 심의 내역과 심의 총평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의결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훈경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지원서 신청을 보면 1명에서 7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산정액에는 금액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비해서 알아서 인원을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 대비 몇 명이라고 같이 결정된 것인가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단체별로 기획경영 분야 몇 명, 창작실험 분야 몇 명으로 인원이 다 결정돼서 지원금액이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결정액을 써주실 때 거기에 몇 명이 결정되었는지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보기가 편했을 것 같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알겠습니다. 표로 보실 수 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연수 단원 쪽에서 기획경영 분야가 247명, 창작 실연 분야가 118명으로 총 365명의 연수 단원이 지원되었고요. 무대기술 인턴이 59명으로 총 424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게 1인당 얼마가 연간 지원되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1인당 민간은 2,160만 원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1인당이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216만 원씩 10개월입니다. 공립은 192만 원씩 10개월입니다.

서승미 위원 :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통예술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선정되었는데요. 국가유산청에서 이것은 받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국가유산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창작 실연 분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기술 인턴십 1명과 창작 실연 분야로 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게 취지하고 맞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저희가 국공립 지원에서 국립 지원은 전부 다 제외를 시켰고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기획경영 등 행정 인력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실연할 수 있는 창작 인력은 공립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공립의 연수 단원은 전통예술 분야 전 장르를 포함해서 총 11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 전통 분야는 공립에 딱 1명으로 국가유산진흥원에 배정된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처음에는 국공립 모두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공립,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2가지 목적이 있는데 한 가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열악한 공연단체나 예술단체의 인력을 지원하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국공립을 선호해요. 거기에 가야 일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측면도 아예 없을 수는 없어서요.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립 같은 경우 가게 되면 속된 말로 보조업무만 하다가 끝난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나 공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력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제대로 일을 하다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국립은 가능하면 제외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양면성도 충족시키면서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사안별로, 그러니까 어떤 곳은 여기에 안 가면 할 수가 없는 경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선정이 되는 쪽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국가유산진흥원이 공립인가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공립단체입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이전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었고요. 국가유산청 산하.

김진각 위원 : 공공기관 아닌가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렇습니다.

김진각 위원 : 공공기관이면.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공공기관은 공립으로 저희가 구분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산하 재단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출연한 것이니까요.

김진각 위원 :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공립이 되죠?

정병국 위원장 : 똑같은 겁니다. 우리 위원회도 국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공공기관이죠.

장미진 위원 : 이전에도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꼭 짚고 싶은데요. 인턴의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또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 문화재단에 직원의 월급을 주는 형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턴까지는 몰라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에서는 공공기관은 꼭 빠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네요.

배은주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예비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코리아화장품과 GS칼텍스가 실연예술 분야에 올라온 예비지만 안에서 공연하는 팀을 두고 있어서 예비로 올라온 것일까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코리아나 미술관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코리아나미술관이 시각예술로 올라온 건가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그리고 GS칼텍스는 예울마루에 큰 전시관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리고 서류 미제출은 어떤 서류길래 미제출이 많았을까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지원신청서를 미제출한 곳이 그렇게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이렇게 많아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그리고 저희 사업은 고용지표가 30점인데요. 거기에 대한 필수 서류 미제출로 그렇게 많습니다.

배은주 위원 : 채용은 저조하지 않아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저희가 그래서 5년치를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저조하기는 한편인데요.

**배은주 위원 :** 저조하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공립기관은 보통 국가의 소속기관, 국립극장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공극장은 공립으로 구분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간으로 출연한 저희 기관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왕치선 위원 :** 우리 위원회도 인턴을 받아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다른 데에서 우리한테 인턴십으로 채용을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1161호 2026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홍승욱 극장운영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본 안건은 2026년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 지원 심의에 대해 결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2025년도에 총 399건 215억 규모가 신청하였고 지원 선정 현황은 총 26건에 13억 전액이 심의 결과를 통해서 배정될 예정입니다.

115쪽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고 해당 작품들이 우수한 레퍼토리로 육성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신청 자격들은 해당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작 제작 또는 2차 제작 계획이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 모두가 신청 가능하고요. 지원의 내용은 작품 제작 경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신작 제작 4작품은 저희가 아르코 꿈발극장에서 9월에 그리고 2차 제작 4개 작품은 6월에 아르코 꿈발극장에서 대관 연계 지원까지 함께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작품별로 지원 규모는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각 작품별 규모와 회차 등을 고려해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추진 경과 및 일정입니다.

1차 서류 심의는 워낙 심의 건수가 많아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196건씩 1차 서류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1.3배수 내외로 2차 인터뷰 대상을 결정해서 신작 제작과 2차 제작을 같이 통합심의 방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후에 결과 발표가

진행된다면 12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심의의 구성으로 본 사업은 적격자 지정 방식을 통해서 결정되며 사무처와 위원님들 간 각각 2배수 내외로 구성해서 랜덤으로 선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다만, 어린이, 청소년 예술지원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심의위원 풀 안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연극과 전통 분야에는 적격한 분들의 수가 부족해서 올해 심의 풀 외에 연극, 전통 등 각 한 명씩 위원님들 추천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역시 감사실 참관하에 같이 포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 구성으로 총 10명이 구성되었습니다.

116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서류 심의를 통해서 최종 지원 결정 대상자의 1.3배수 내외로 2차 심의 대상을 선정했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심의 기준은 신작의 경우 작품의 예술성이 40%,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40% 그리고 사업계획의 공공성이 10%, 신청 주체의 사업수행역량 10%로 구성되어 있고요. 118페이지에 있는 2차 제작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작품의 예술성 30%,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50%, 사업계획의 공공성 20% 그리고 초연 이후 극장이라든가 각종 축제의 초청이나 수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량으로 5점을 배정해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제작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재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초연 이후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작품으로서 고유한 레퍼토리화 또는 예술경영지원센터나 타기관의 유통 사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 계획이 있는 작품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접수 결과 총 392건 중에 걸적이 7건입니다. 신청서 오제출 3건과 필수자료 제출이 되지 않은 건을 포함해서 총 7건이 걸적 대상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의 대상으로 392건이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분야별 신청 현황과 건수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전체 총 사업이 13억입니다. 그 가운데 7억이 신작 제작에 투입되고 2차 제작에 6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장르별 예산에 대한 배분은 지원신청건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예산을 배정해서 각 분야별로 배정해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결정 현황입니다.

1차 심의 결과에서 2차 심의 대상을 총 37건 선정했습니다. 신작에서 13건 그리고 2차 제작에 12건으로 최종적으로 2차 심의 결과를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총 26건 13억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각 장르별로 건수들과 지원결정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들이 지원신청 대비 결정 현황의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6.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유는 아직도 신나는 예술여행으로 진행되었던 유형의 사업들이 본 사업을 통해서 신청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6년도 사업에서는 사실 본 사업의 목적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고 우수한 신작에 대해 2차 제작을 통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분명한 목적성 사업임을 밝혀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다수 지원신청을 해서 지원 결정 현황이 신청 대비 낮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의 목적들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권고사항으로 총 3건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심의 안에서도 동일한 기준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안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본 사업의 목적과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작품들이라서 배제되었고 최종 3건으로 11.5%가 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에 심의 회피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음악과 문화일반, 전통예술, 연극·뮤지컬 등 각각 심의위원들께서 회피한 내역들이고요. 행정 결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124페이지 상단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결이 되면 12월 30일 기관 누리집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저희가 본 사업을 통해서 결정된 8개 작품은 꿈밭극장에서 공동 기획으로 연계하기 위한 지원사업들도 함께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점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신나는 예술여행 때문에 13억 지원사업에 400건이 지원신청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6.6%밖에 선정이 안 된 것이고요. 그러면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응모하는 분들한테도 조절해서 공모를 하라고 당부하시겠지만 여기에서도 지원금을 늘리고 해야지 너무 하지 않아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본 사업이 아마 한문연. 지금 복원이 안 된 상황이라서요.

**정병국 위원장 :** 신나는 예술여행이 건수가 많은 것과 어떤 관계가?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신나는 예술여행 유형의 사업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이 그 안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초등학교도 찾아가고 지역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사라지니까 이쪽 사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런데 복원될 가능성은 아직 없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게 우리 사업이 아니고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도 복원이 안 되고요. 그때 가져갈 때 우리한테 얘기하기로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문체부에서 얘기하고 가져갔는데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원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산을 안 주니까요.

**장미진 위원 :** 육은 우리가 먹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결국 현장에서는 넘어갔다는 것을 알아요. 처음에는 우리한테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1월 초에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고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20년이 넘게 진행했고 현장에서

가장 안정화가 되어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우리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업무 중복이 된다고 하면서 예술경영지원센터로 가지고 간 겁니다. “가져갔으면 거기에서 꼭 살려라” 현장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는 걸 장관한테 말씀드렸고 실무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예산을 없애버린 것이죠.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넘어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요지 자체는 신나는 예술여행이 선정되면 지역투어를 하는데 지역문화재단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향유사업과 너무 중복된다는 논리로 해서 조정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니즈가 대단히 많고 여러 경로로 들어가는데요. 이번 달 초에도 공연과에 확인을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에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훈경 위원** :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 사업과 관련 없이 신나는 예술여행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연극계와 문체부 쪽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신나는 예술여행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충분히 인지하고 2027년도에 방향성을 감안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했다는데요. 혹시 저희 쪽과 공유된 내용은 아닌가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2027년도요. 2026년도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훈경 위원** : 2027년도에는 반영하겠다는 것인가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런데 그런 예산 책정도 없이 그냥 문체부에서 대답을 해 버리신 거네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2027년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고요. 내년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아마 예술지원경영센터의 유통사업의 불륨이 이번에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일부를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안건번호 제1162호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도 홍승욱 극장운영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202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등 3개 분야고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천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공연 창작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사업예산은 포상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억 3,000만 원이 지원액의 규모입니다.

14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 때 무용과 전통예술 분야에 대한 대본 공모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공모 시행 분야 확대에 대한 내·외부 환경 분석과 의견 수렴을 진행했구요. 그다음에 무용 분야 대본 공모와 관련해서 사업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도 2차례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추진해야 되는 시점 안에서 신규 유입될 2개 분야에 대한 추진의 필요성,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예산이 2026년도 예산 확정시에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등 3개 분야로 저희가 정부부처(안)을 통과했고 그다음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받는 사업들로 되어 있어서 해당 분야의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수요는 사실 지원사업의 수요자를 고려한 예측 가능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기존 3개 분야는 기 고지한 일정에 따라서 이미 작가들이 작업 활동들을 해 왔고 새로 신설되는 분야는 사실 대본을 아직 작성한 상황이 아닌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분리해서 저희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신규 사업에 대한, 신규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창작산실 지원심의에서 결정되지 않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확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통예술 분야와 무용 분야에 대한 새로운 무용 대본 공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2026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시범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때 위원님들께도 당연히 잔여 예산 활용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아서 진행될 사안임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분야 우수작품 발굴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은 극작가와 작곡가 개인에 해당이 됩니다.

149쪽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해당 조건들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순수 창작물로 공연화가 가능한 완성된 대본이어야 하고 공연 시간은 60분 이상의 분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박스표 안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작이기 때문에, 타 저작권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기준들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포상금으로 2억 3,000만 원입니다. 각 분야별로는 연극 8건에 배정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선정 작품별로 각 작가별 1,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고요. 창작뮤지컬은 1억이 배정되어 있으나 작품 수로는 5개 작품입니다. 극작가와 작곡가가 반드시 동일한 음악과 대본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각 작품별로 2,000만 원씩 배정할 예정입니다. 창작오페라는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지난해부터 바뀐 사항들인데 음악 없이 대본으로만 구성된 작품들을 저희에게 신청하면 그 대본을 먼저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5개 작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7년도에 창작오페라 실연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2,500만 원의 실연 심의를 지원하게 됩니다.

중점 추진 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작오페라 분야는 방금 말씀드린 단계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본 공모를 통해서 발표된 작품들은 각각의 고유 프로덕션들이 이미 충분히 작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월에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기획 공연의 형태로 낭독 공연을 발표하는 방식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공모 및 접수 신청 기간입니다.

2026년 1월 6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 24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신청 방법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방법으로는 본 사업은 신청한 작가와 작곡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블라인드 심의로 진행이 됩니다.

심의 기준은 작품성이 80%, 무대화 가능성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자료 151쪽입니다.

제출 자료는 전 분야 필수적인 사항으로는 지원신청서, 전막 대본, 시놉시스고요. 뮤지컬 분야는 악보가 8곡 이상, 음원 8곡 이상 MP3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 저작권. 그러니까 원작에서 완전히 각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 서류들이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역시 적격자 지정 방식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장르별 위원님들과 사무처가 각각 필요 인원의 1~1.5배수 내외로 정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심의위원은 5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접수 이후에 행정검토와 심의위원회까지 3개월가량 걸립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상당히 많고 적막 대본과 악보를 다 같이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길게 진행되고요. 그래서 해당 심의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받아서 2026년 6월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포상금이라고 하시는 것은 정산이 필요 없이 그냥?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맞습니다.

**장미진 위원** : 그때 논의할 때 대본이고 무용이나 전통처럼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르별 구분을 없애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연극 8건으로 결정되어 있는데요. 신청자는 물론 쓸 수 있겠죠. 무용이든 연극이든 쓸 수 있지만 심사의 벽은 열어놓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가 그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된 것이 없나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특히 뮤지컬 같은 경우, 그리고 오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음악과 대본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연극과 무용, 전체 장르를 아울러서 같이 심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특히 심의위원회 전문성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되

는 사업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완전 블라인드 심의이기 때문에 대본과 악보에 치중해서 결국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야 해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도 심의하신 분들을 보니까 연극, 음악을 다 왔다 갔다 하시던데요. 그렇게 전문성이 구획되어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대본 공모 관련해서요?

**장미진 위원 :** 예. 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은데요. 다른 장르도 흡수할 수 있고 음악의 경우에는 음악도 같이 결합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열어놓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한번쯤 발전시켜 봐도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사실 저희가 비단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고유한 장르 간 경계가 다 허물어진 유형의 작품들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각 장르별 심의를 하다 보면 어떤 장르는 “이걸 무용 쪽에서 지원하는 게 맞나요?” 또는 “시각 쪽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다원 쪽에서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연극도 마찬가지로 뮤지컬과 오페라도 경계에 있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작년에 왕치선 위원님께서도 음악 심의를 하시면서도 보셨지만, 장르 간 경계를 허무는 상황들이 많아서요. 이것은 비단 대본 공모뿐만 아니라 예술위원회 전체의 고유한 장르별 심의에 대한 방식들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공연 분야, 시각 분야 등으로 큰 구조로 병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검토를 해 보세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공모안에 대해서 문의드리면 대본 공모가 대본이 있고 시놉시스와 악보, 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놉시스나 대본은 작가가 쓰게 되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음악감독을 섭외해서 협업의 형태로 해야 하는데요. 혹시 1차에서는 악보만 받고 2차로 선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음원을 받는 부분으로 공모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음원을 만들게 되면 mp3 형식으로 음원을 제작해야 하잖아요. 그게 창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리스크가 있죠.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심사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악보를 가지고 1차로 선정하고 2차에 올라온 사람들한테는 녹음한 mp3 파일이 되겠죠. 그렇게 받으면 어떨까 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해 봅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지금 악보와 음원을 받고 있는 분야는 창작뮤지컬 1개 분야인데요. 사실 예전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 제출할 필수자료들을 논의할 때 뮤지컬 분야에서도, 처음 기획·발굴 단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작품적 소재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갖고 발전시키는 방식들이 민간프로덕션들이 뮤지컬을 제작하는 방식들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 단계로 가려면 대본 공모 앞단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없어진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전에 창작의 과정이라는 사업들이 그 단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작품의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작가가 리서치를 해서 좋은 대본을 만들면 그 이후에 작곡가가 붙는 방식들도 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쪼개게 되면 사실 행정적 소모도 많을 수가 있고요. 선정하는 절차 안에서도 그 다음 단계에 대해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사항이라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 쪽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전번호 제1163호 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전경영책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희영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영 경영지원팀장 :** 안전 번호 제1163호 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전경영책임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사업과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159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과 목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임직원 및 안전관리 대상 사업 근로자 생명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운영하고 산재 예방 및 중요 시설물 관리를 통해 근로자 및 국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26년 안전경영계획의 기본 방향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 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는 1명도 없습니다.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은 2025년 아르코꿈밭극장 1개가 추가된 9개고, 전담팀은 3개, 전담 인력은 총 29명입니다.

예산은 2025년 55억 대비 약 24억 원이 증액된 79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비 개보수 비용 31억 원이 증액되었고, 안전 관리비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비 개보수 비용 30억 원은 대학로예술극장 무대 기계 교체 비용 2026년 예산에 반영되었고 안전관리 비용 8억 원 감액은 2025년도 나주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서 8억 원이 감액된 부분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계획으로 회의자료 160페이지입니다.

먼저 대극장의 노후화된 무대 기계장치 교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나주청사 옥상 방수 공사 등 시설별 노후화에 따른 누수 공사 및 방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업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안전 점검의 날 및 FMS 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안전 점검은 위원장

및 안전관리책임자 주체 하에 총 6회 그리고 안전관리 전문 업체를 활용하여 총 1,505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 안전교육은 분기별 3시간 총 12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별 맞춤 안전교육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며, 재난 안전 훈련은 상·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 및 근로자 각 6명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1회 개최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전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중요한데 저희는 의견을 못 내는데요. 보수 안전이 다 정리된 다음에 공유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중간에 시설물별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에 대해 알 수가 있다면 예산을 책정하거나 진행함에 있어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 과정을 모르다가 보수하겠다고 하니 그게 왜 필요하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가능하다면 중간에 과정을 한 번씩 보고 안전으로 올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분기별로 한번씩.

**전희영 경영지원팀장 :**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설의 통상적인 페인트칠과 옥상의 방수공사 등은 굳이 보고가 필요 없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내년도 특이 사항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로예술극장에 30억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은 그런 이슈가 발생하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자세히 보고하셨나요? 몇 개월 동안 문을 닫죠?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대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지금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이 2010년 개관 이후에 단 한 번도 무대 상부에 대한 전체적인 공사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무대 상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무대장치들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러한 무대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구동 모터부터 장치들이 다 있는데요. 저희 극장이 다른 극장과는 달리, 저희는 장기 공연의 형식이 아니잖아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이 한번 들어가면 2개월도 하는데요. 저희는 무용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도 3개 작품이 돌아가기 때문에 무대 상부의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었는데 잘 안되다가 마침 2026년도에 대학로예술극장 무대 상부의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교체공사비 30억이 배정돼서 내년에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을 6개월 정도 휴관하게 됩니다. 이따가 대관 접수와 선정 결과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은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휴관이고요.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은 공사하게 되면 소음이 유

입됩니다. 그래서 12월 1개월 동안 저희가 휴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다음은 안건 번호 1164호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2026년 이월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162페이지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중에서 2026년도로 이월되는 건들에 대한 의결을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3번 주요 내용이 있는데 표에 기재된 3건으로 총 47억 7,000만 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술창작산실 관련해서 예산 1,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2025년에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 같은 경우에는 주로 2026년 초에 이루어지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관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용역이 내년도에 종료되는 관계로 그 대금만큼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예술패스인데요. 총 47억 원 가량을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크게 보면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2025년도 말 지원 대상자가 12월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관람비 정산이 내년도 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46억 원 정도를 내년도로 이월하는 게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 고도화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 2월 정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 잔금 4,500만 원이 내년도로 이월돼서 47억 원 정도가 이월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비 예산 중에서 2,200만 원을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올해 우리 기관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돼서 대응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 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관계로 해당 용역도 2,200만 원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있는 내용들은 말씀드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인데 보고를 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자료로 같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만, 잠시 휴정하고 3시 55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

했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안건은 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 보고에 대해서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171페이지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8월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고드린 2026년도 정부안 편성과 대동소이해서 변동된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수입 및 지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325억 원으로 기존에 보고드렸던 6,152억 원 대비해서 170억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아래 적립금 현황 및 전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적립금 현황 및 전망입니다.

적립금 밑에 보시면 기말적립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적립금은 2025년도 말 기준으로 451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594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별표가 3가지 있는데 세 번째 별표를 보시면 2026년도 기말적립금부터 건축물미술작품대체기부금 포함 계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크게 보면 문예진흥기금의 주머니가 문예기금적립금과 건축물미술작품대체기부금 등 2가지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건축물미술작품대체기부금은 문예기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애초에는 공공 미술 사업에만 해당 예산이 투입되어 왔는데, 계속 공공 미술 사업은 기재부에서 예산이 미반영되다 보니까 건미적립금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예기금적립금이 감소 추세에 있어서 올해 국회 문체위 보고서나 기재부에서도 건미기부금을 문예기금과 별도로 관리하고 별도로 지출할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따라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문예기금의 사업으로 지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적립금에는 해당 재원을 포함시켜서 표시하다 보니까 기말적립금이 내년 기준으로 594억 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봐주시

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증액되는 게 아니라 건축물미술대체적립기금이 약 700억 남짓 모아져 있었는데 그것도 싹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 700억인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맞습니다. 720억 정도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 갖다가 쓰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남는 게 590억 정도밖에 남지가 않는 거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 국회 증감 및 조정 세부 내역 관련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의 여유자금회수 부분입니다.

원래 여유자금회수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기관이 보유한 적립금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매해 해당 금액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기재부에서 통보가 오는 값을 기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건축물미술작품대체기부금을 적립금 총 규모에 포함시키고 해당 재원을 문예기금에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서 여유자금회수를 기존처럼 일상적으로 통보 받아서 허수로 넣는 것이 아니라 문예기금의 실제 적립금 규모를 명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확정된 값으로 1,181억 원을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먼저 사업비에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소년소녀합창단 해외 공연을 2026년도에 한시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3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구요. 그다음으로는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의 단가를 상향하는 것으로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에서는 국비지원금 2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 여유자금운용의 변동은, 앞서 말씀드린 수입은 고정되는 반면에 지출은 이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연동되어 변동된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영한 총괄표라서 자료로 같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를 할 때에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군요.”라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뒤에 문체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장관이 직접 챙기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업무보고가 있던 직후에 그다음 주에, 국회에서 김재원 의원, 임오경 의원, 김승수 의원이 공동으로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했고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도 했고요.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공연물, 뮤지컬이나 대중예술 같은 경우가 순수예술 분야의 공연물들은 부가가치세가 다 면제되고 있는데 대중예술이나 뮤지컬 분야는 아직까지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 몫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 달라. 이것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관은 기재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문체부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그래서 기재위로 2년 동안 가서 바꿔보려고 했는데요. 기재위에 갔더니 여야 없이 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의지를 가지고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정부 입법안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나 정부 쪽 관계자들에게 “지금 대통령의 문화부 치적이라고 하면 이것만 하면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이 제대로 되면 액수를 따져보니까 연간 1,100억 정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올해도 보면 1,000억 정도 문예진흥기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라든지 복권기금하고 합쳐져서 하면 연간 200~300억 정도는 축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게 가장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는데 다른 기금을 우리가 끌고 오는 것은 해당 단체나 조직에서의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런 저항 없이 어차피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입을 시켜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명목을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안전감도 주고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년 예산을 짤 때에 안전감 있게 문예진흥기금이 얼마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보고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 안건은 2026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결과 보고에 대해서 홍승욱 극장운영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2026년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공공극장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통해서 현장과 예술가와의 창작활동을 함께 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갖고 진행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로 미래형 공공극장의 3가지 가치 설정을 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술가들과 함께 기후 위기, 접근성, 다양성 분야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고 작품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축제 사업을 위해서, 특히 국제성이 있는 축제와 관련해서 2개년 대관을 할 수 있도록 방향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축제 중 2개년과 관련된 부분들은 해외의 예술가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장기간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르 간, 축제와 개인 및 단체 간 균형 있는 공모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르적으로는 연극과 무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극장이다 보니까 연극과 무용이 가급적 5대 5 정도. 공모일 수와 신청 건수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이 되더라도 5대 5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와 개인 및 단체 간에서는 축제가 30% 이내 그리고 개인 및 단체들이 7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공고 기간을 포함해서 진행되었고요. 접수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하였습니다. 접수 방법은 저희 아르코·대학로예술

극장 온라인 대관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접수하였고 공모 대상 공연장은 4개 극장이 되었습니다.

공모 대관일 수입입니다.

여기 참고 사항으로 적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의 무대 공사가 내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고 더불어 이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도 12월 한 달간 휴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4개 극장의 대관 가능 일수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133일이 줄어든 535일로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접수 결과입니다.

전년도 접수 건수와 동일하게 256건이 신청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접수 건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심의 추진 경과입니다.

저희 심의는 총 4번에 걸쳐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연극과 무용, 음악, 기타 다원을 포함한 심의가 무용과 연극을 중심으로 나눠 1차, 2차로 진행되었구요. 2차 인터뷰는 1차 심의에서 통과한 축제 사업 유형만 따로 모아서 인터뷰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인터뷰 심의에는 올해 휴관일 수가 긴 상황을 각 대관 단체들에게 설명드리고 축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대관일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구요. 꼭 필요한 대관 일정 그리고 꼭 필요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어서 배분되었습니다.

3차 통합심의는 이렇게 통과되어 있는 선정 결과를 기점으로 해서 고득점 순위부터 가장 근 기일에 있는 일정들을 우선 배정하고 선정단체의 연간 일정을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통합심의가 진행됩니다.

심의위원 구성입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저희 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에서 3인 그리고 2016년 이후 대관심의위원을 하신 분들 가운데 4인 정도로 구성했구요. 신규로 외부 전문가 1인을 구성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대관 심의 명단 안에서는 가급적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심의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연극 1인, 무용 1인. 직전년도 심의를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앞에 있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결과는 최종 6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약 19건이 감소되었구요. 그다음에 통합심의 결과는 오늘 최종 65건 중에서 연극이 25건, 무용이 38건, 다원이 2건 그리고 예비 8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비 8건은 대관을 포기한 경우, 순차적으로 예비 단체와 연락을 통해서 사무처가 진행할 예정이구요. 혹시나 서울문화재단이나 각 지역재단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심의 대관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남은 공실을 이용해서 저희 사무처가 수시 대관을 통해서 남은 잔여 일자리를 채워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82쪽에는 예술극장 정기대관 유형별 선정 결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연극이 신청을 115건 해서 선정이 25건, 무용이 119건 신청해서 38건이 되었구요. 경쟁률은 지난해 3.05대 1대비 4.03대 1로 약 1% 정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공연 장르별 건수 및 일수 결정 현황을 보시면 연극은 약 277일 정도가 배정되었구요. 무용은 일수가 210일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극과 무용 간

건수와 일수의 균형을 맞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결정 현황을 보시면 건수로는 2025년 대비 19건이 감소했고 일수 기준으로는 약 139일 정도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183쪽입니다.

축제 및 단독공연 결정 현황입니다.

지금 축제가 건수로는 약 24.62%로 16건이 선정되었고 일수로는 약 148일 29.66%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독공연에 대한 건수는 49건으로 75.38%고 일수로는 351일인 70.34% 정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지난해 아시테지 여름축제 2개 공연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크리티क्स 초이스 등 2개 공연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즉흥춤 축제가 지난해 2년으로 선정돼서 올해까지 합쳐진 일정들을 표로 표시했습니다.

오늘 보고가 접수되면 저희도 12월 30일에 극장 및 기관누리집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과 2차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 심의 결정의 건 심의가 12월 13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 올리지 못하고 1월 5일부터 1월 10일이 있는 주간에 위원님들께 서면 의결을 올려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신작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바로 실연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교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의 세세한 사항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 2025년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훈경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2차는 서승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2차와 3차를 나눠서 보고해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서승미 위원 :** 2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는 작년에 이어서 2025년 올해 추진된 문화예술생태계 연구에 각 장르별 진행 경과 상황 및 차후 연구 일정 및 성과 공유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자면 1차 연구는 아시다시피 문화생태계를 거시적으로 조명해서 현 예술계의 현주소를 조망했다면 2차 연구 때는 1차 연구에서 창작 가치 사슬 단계를 기준으로 도출된 쟁점을 각 분야별로 몇 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쟁점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얘기고요. 3차 회의 내용은 차후 성과 공유회를 어떤 식으로 열 것인가에 대한 논의까지 2차 회의 때,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3차 회의도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이어서 3차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3차에서는 어떻게 집중 주제로 해서 진행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다루기 위해서 서승미 위원님의 제안으로 저희가 포럼 추진에 대해서 공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1월 26일에서 1월 29일 사이에 8개 분야를 이틀에 나눠서 공유하기로 했고요. 공유 방식에 대해서 외부 공유와 내부 공유 2가지를 두고 의논했습니다. 의논한 결과 아직은 이게 외부로 공유되고 외부에 알려지고 외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서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에 대해 내부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아까 말씀드린 1월 26일에서 29일 사이에 이틀에 걸친 포럼은 내부 포럼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송출이나 영상 녹화는 굳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은 생략을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외부 토론일 때는 좌장을 위원님들이 진행할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내부 토론인 만큼 좌장을 굳이 위원들이 할 필요는 없고 담당하시는 박사님이나 사무처에서 전체적인 진행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발언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좀 정리되면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1년을 조금 더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포럼이 진행되니까 많은 분이 함께 참석하셔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승미 위원** : 날짜가 확정되었나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일자는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번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다섯 번째 보고 안건 2025년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6차 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회의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줌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 했는데요. 일단 기업 문화력 지수를 개발하고 실증 연구와 관련된 논의가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아르코 웹진 관련된 논의였는데요. 저는 문화력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지난번에 기업이 문화예술 쪽에서 어떤 기여하고 있는가? 지난번에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문화예술 공헌 기여도 조사 하나의 연장선으로 접근했고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화력이라는 것. 문화적 역량을 측정해서 문화예술 쪽의 후원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갖고 접근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영학회에서 연구했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서 객관성 또 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이게 기업에 공개했을 경우 그리고 외부에 공개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들이 기업 문화력 지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향후 기업이 문화예술 분야의 후원이나 기부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액션플랜이 필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나눈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시면 연구 결과 전략적 활용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과 맥락적으로 닿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예술 지원기관이 처음 하는 시도고 어떤 정부 기관도 해본 적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법론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공개했을 경우 그리고 공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는가? 그리고 위원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국 위원회가 이렇게 정부의 지원기관으로서 후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술 가치를 확산시키고 그런 방향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들이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여지를 향후 하나의 과제로 부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보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경영학회와 같이 그동안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경영학회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그쪽에서 연구하게 했던 이유는 경영학회가 기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호 관계에 있는 학회이기 때문에 경영학회가 이것을 했을 때는 신뢰도가 있을 것이고요. 경영학회의 교수들을 통해서 기업인들에게 홍보하고 설득시킬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폭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어요. 그날도 오늘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우려되는 점들이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런 부분들을 빚겨가면서 우리가 의도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것이 계속 다져져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어쨌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우리가 시도한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과 같이 정부예산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돌파구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예술계의 지원이라는 폭도 보이지 않고 관제화가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그동안 끊임없이 후원과 관련해서 노력한 결과 올해 150억 정도 후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목표했던 액수보다 초과 달성하게 돼서 기금 변경 신청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금 변경을 신청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돈을 벌어드는 것은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쾌히 그쪽에서도 기금 변경을 해 주게 되었고요. 기금 변경을 하는 과정에

서 인식을 다시 한번 시킨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많은 노력해 주셨고 우리가 집중했기 때문에 그만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화력 평가 지수가 발표되고 그 이후에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후원을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데 여기에 4대 구성요소를 보면 첫째는 내부 문화자본이고 둘째는 브랜드파워고 셋째와 넷째가 창조지원과 향유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포션을 어떻게 줘서 지수를 만들지는 몰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문화예술지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조직 역량과 브랜드파워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아마 이것을 연구하려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면 이것을 통해서 재정적, 경영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을 노리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기 구성요소 4개 중에 2개는 일반적인 경영진단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섞여서 문화력으로 설명이 되었을 때는 3번과 4번에 대한 얘기는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연구가 거의 끝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새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력 지수라는 두루뭉술한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처음 의도했던 부분이 덮이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3번과 4번에 대한 요인들을 끄집어내서 내부 문화자본이 됐든 브랜드파워가 됐든 아니면 재정적 효과가 됐든 이런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홍보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요. 지금 4개가 섞여 있는 개념으로는 문화력이 A라는 기업이 10점이라고 해도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창조와 향유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각 위원 :** 저희가 중간보고하고 마지막 보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맡은 게 한국경영학회이기 때문에 사실 예술에 대한 이해가 완전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경영의 틀에서 이 문제를 본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력 지수라는 것도 정말 생소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연구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경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경영학회에서 4가지를 제시했지만,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공개된다고 하면 우리 예술위원회가 추구했던 것. “처음에 이런 것을 왜 했을까?”,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오도록 보도자료를 최종 공개할 때 많이 관여해서 손질해야 하는 과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경영학회에서는,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화력이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는 이것을 통해서 조금.

**김진각 위원 :** 문화력 지수 개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력 지수가 갖는 의미. 이게 향후 문화에 어떤 문화예술 후원을 유치하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던지는 쪽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그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언론을 동원해서, 특히 경제신문을 동원해서 기획 기사를 시리즈로 실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조사한 전체 기업들을 다 발표할 수는 없고 잘하는 곳부터 발표할 텐데요. 발표하면서 기획 기사에서 상세하게 어떤 평가와 어떤 의도로 이것을 시작했는지. 이게 처음부터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기업이 문화예술에 후원하고 향유에 얼마나 노력했는가만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게 되니까 저항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해 보자. 일단 올해가 첫 번째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또 다시 연구 검토를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끌어내보자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장미진 위원** : 저도 말씀드리면, 연구의 출발 전제가 기업이 보유한 경쟁력이 재무적 성과에서 문화적 역량으로 바뀌었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출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상위 100개 기업이라고 하지만 60% 이상이 문화재단을 끼고 있는 계열사, 회사들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위층과 하위층의 점수 차이가 언뜻 보기에 20배 이상 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 의도를 너무 중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문화력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 정도로 자리매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그동안 발표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발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진각 위원** : 중요한 것은 사실 한국경영학회의 연구 결과물로 포장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병국 위원장** : 경영학회가 발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발표합니다.

**김진각 위원** : 그렇게 하는데요. 연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타인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치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여섯 번째 보고안건 2025년 경영전략소위원회 6차 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6차 회의는 올해 마지막 경영전략소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래서 안건은 지난 회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르코 비전 공모전 심사 결과고 이것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204쪽을 보시면 17건이 사무처 내부 직원들이 접수했고 개인이 13건 접수를 했고요. 중복까지 합쳐서 9명이 접수를 했고 단체가 4건 등 접수했습니다. 올해는 이것보다 접수 기간이 짧았는데 접수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연장해서 12월 2일까지 접수가 이루어진 것을 갖고 사무처의 심사 그리고 경영전략소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해서 합산한 점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12월 22일에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개인 1명을 포함해서 5명과 단체 2개 팀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예술위원회의 기관사업, 향후 사업을 구상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엇보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2026년 1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1월 위원회 전체 회의는 1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0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회의 종료)